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후순위채 발행 크게 늘려

□ 최근 중국 보험업계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보험업계가 올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이미 170억 위안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됨.
- 중소형 보험회사로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창청생명(长城人壽)은 최근 보감회로부터 10년 만기 후순위채를 5억 위안까지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조만간 발행할 계획임.
- 이에 앞서 양광보험(阳光保險, 15억 위안), 인민보험공사(人保健康, 8억 위안), 인민생명(人保壽險, 12억 위안), 타이강생명(泰康人壽, 30억 위안) 등이 후순위채 발행 대열에 참여한 바 있음.

□ 현재 보험업계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지급준비율 제고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,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보험회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보험금 지불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.

- 작년 10월 보감회는 <보험회사 지급준비금 관리규정>을 발표하고 보험회사를 지급준비율 기준으로 미달군(100% 미만), 충족군 I(100%~150%), 충족군 II(150% 초과) 등 3개 군으로 분류하는 등 지불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.
- 상기 규정이 발표된 후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지급준비율을 제고하고 있음.
- 평안손보(平安产險)가 올해 4월 10년 만기 후순위채 20억 위안을 이미 발행했으며, 인민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약 80억 위안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는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보험회사들도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업계의 후순위채 발행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.

(금융시보, 상하이증권보, 11/4)